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2~6일
코스피지수	2040.22	▲	+53.21
코스닥지수	642.72	▲	+31.99
환율 (원·달러)	1191.00	▼	-19.50

지수는 6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2020년 3월 9일 월요일 13

비즈 프리즘 | 코로나19로 신음하는 항공업계

“하늘길 막혔다”...상반기 5조원 날릴 판

아시아권 여객 작년비 62~85% 줄어
미주·유럽 노선도 11~30%선 감소
항공사마다 매달 100억~200억 적자
한일 운항중단...눈덩이 피해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로 몰리고 있다.

한국인 입국제한을 하는 국가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지난 주말 일본의 전격적인 한국인 입국제한에 이어 우리 정부도 비슷한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6월까지 이어지면 업계 피해가 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8일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국제선 여객은 65만2626명, 전년 동기과 비교해 65.8%나 줄었다. 특히 중국 노선 여객이 85.2%나 감소했다. 일본과 동남아 역시 각각 70.6%, 62.1% 줄었고, 미주와 유럽도 각각 11.8%, 2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이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편과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티켓 창구. 국적 항공사들은 2월 넷째주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출한 결과 6월까지 최소 5조875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됐다. 더구나 이 예상치는 일본이 한국인 입국 제한을 실시하기 전인 2월 넷째 주를 기준으로 나온 것이어서, 한 일간 항공운항도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까지 반영하면 매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본의 전격적인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현재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대부분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은 일본 노선을 9일부터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모든 일본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9일 이후 일본을 오가는 우리 국적 항공

사의 노선은 대한항공의 인천-나리타, 제주항공의 인천-나리타, 인천-오사카 등 3개 노선만 남게 됐다.

운항중단과 감축으로 매출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지만, 항공기 리스료, 사무실 임차료, 공항시설이용료 등의 고정비용은 그대로 나가 항공사마다 한달 평균 100~200억 정도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항공사들의 경영상황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정부도 지원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 지원대책에 이어 항공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주 중으로 세계 각국과 운수권 유예 등을 포함한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는다. 산업은행도 일부 LCC의 금융지원 심사를 마치고 자금 유동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될 경우 세계 항공사가 1130억 달러(약 134조 원)의 매출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을 5일 내놓았다. 이는 2월 21일 예상했던 매출 손실 300억 달러(약 34조 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손실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SKT, ‘게임·e스포츠’ 영역 넓힌다
태국·싱가포르 통신사와 합작사

SK텔레콤이 신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게임·e스포츠 영역을 더 확장한다. 미국의 컴캐스트와 e스포츠 전문기업을 출범한데 이어 동남아시아 현지 사업자와도 손을 잡았다.

SK텔레콤은 싱가포르 통신사 싹텔, 태국 통신사 AIS와 함께 게임 플랫폼 합작회사 계약을 체결했다. 3사가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지분 및 권리도 동일하게 나눈다. 연내 서비스가 목표다. 게임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보는 게임’ 등 플레이 외적인 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우선 여러 나라 게이머들이 교류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를 허브삼아 다른 연계 서비스로 확대한다.

e스포츠도 핵심사업 영역이다. SK텔레콤은 e스포츠 구단 T1을 보유하고 있으며, 싹텔과 AIS도 자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왔다. 3사는 5G로 e스포츠를 가상 현실(VR) 생중계하거나 프로그래머 시야의 멀티뷰로 중계하는 등 한국서 상용화한 서비스를 해외 팬에게 제공하는 등의 연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게임과 e스포츠 영상이나 프로그래머를 주인공으로 하는 콘텐츠를 취급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글로벌 유력사들이 힘을 모아 세계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위기를 사회화와 계기로 전환하도록 5G,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슬기로운 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KT, IPTV로 종교활동 무상지원

K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활동을 잠정 중단한 종교기관과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하는 지역보건소에 그룹 간 소통을 지원하는 ‘올레 tv CUG(공동사용자그룹)’ 서비스를 6월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정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자체 방송국으로 종교 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기업, 아파트 입주민 모임, 동호회 등에서 정보공유 및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우리교회tv’로 현재 190여개 교회, 약 200만 명의 교인이 이용하고 있다.

KT는 천주교와 불교, 지역보건소 등 기타 단체에 채널 900번(마이클룸)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종교 단체나 지역보건소는 전용 고객센터(031-425-8240)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언택트 소비’, 부모님 위한 온라인 대리쇼핑 늘었다

홈플러스, 배송지 변경 건수 58% ↑
자녀 위한 밀키트·실내용 완구 인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소비 풍속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먼저 온라인 구매에 익숙치 않은 노부모를 위해 대리 쇼핑에 나서는 고객이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몰의 매출 분석에 따르면 배송지를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문한 건수가 전주보다 58% 늘었다. 자녀들이 부모 집으로 배송지를 변경한 것이 많다는 분석이다. 상품 역시 생필품은 물론 보양식 재료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주

문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홈플러스 온라인몰은 ‘부모님 대신 장보기 기획전’을 마련했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에 이어 초·중·고교도 개학을 연기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도 인기가 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밀키트 간식 메뉴를 배송받아 조리하는 집이 늘었다.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GS리테일의 매출 분석에 따르면 밀키트 브랜드 심플리쿡의 치즈짜장떡볶이, 함박스테이크, 크림파스타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메뉴 매출이 전월 동기보다 무려 353.2%나 늘었다.

유·아동 완구도 인기다.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롯데닷컴의 실내용 대형완구와 보드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GS리테일의 심플리쿡을 즐기는 가족 고객.

30%, 2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 온라인몰에서는 게임기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

김혜미 롯데닷컴 홈리빙셀 상품기획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자녀와 함께 실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찾고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y@donga.com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 16일까지 연장

강원랜드가 카지노 휴장을 16일 오전 6시까지 연장한다. 강원랜드는 6일 본사 행정동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휴장 연장을 결정했다. 강원랜드는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반영해 일주일 단위로 카지노 휴장 연장 여부를 논의기로 했다. 한편, 강원랜드 노사는 5일 상황이 진정국면으로 전환되는 즉시 회사 및 지역 정상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재범 기자

LGU+, 5G갤러리 13만 번 체험

LG유플러스의 5G 기반 문화예술 공간 ‘U+5G 갤러리’가 6개월 간 총 13만 회가 넘는 고객 체험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U+5G 갤러리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덕역에 개장해 올해 2월까지 운영됐다. 서울교통공사, 구급과의 협업으로 문화예술 작품을 증강현실(AR)로 볼 수 있는 갤러리를 선보였다.

김명근 기자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들의 건강학

안전한 ‘임플란트’ 어떻게 해야 하나?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인공 치아의 이식을 통해 건강한 구강을 가지게 하는 보철 시술 중 하나이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턱뼈나 잇몸뼈의 상태, 치아의 배열 등이 각각 다르므로 원인은 물론이고 이후에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처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인지한 후에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플란트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는 후에 출혈, 부종이 증가하고 멍이 드는 등의 후유증이 필연적이다. 게다가 잘못된 수술 계획과 수술 시행 중 미숙한 기술력으로 인한 오차 등이 발생하면 임플란트의 저작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 얼굴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플란트는 특히 주위염을 주의해야 한다. 주위염은 임플란트 기둥 주변의 잇몸뼈 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잇몸이 붓거나 심한 통증, 악취 등이 동반

된다. 치료방법은 염증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초기에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만 염증이 국한돼 있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장기간 내버려 두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 잇몸뼈가 녹아내려 식립해 놓은 인공치근이 빠질 수도 있다.

임플란트 치과를 선택할 때에는 경험과 기술, 수술 후 관리프로그램, 위생과 청결 상태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안전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도 필요하므로, 치과 내에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는 재수술 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환자의 구강 상태와 전신 건강상태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최적의 시술 계획으로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승엽 헬리오시티 이나은 치과 원장



몸을 훈훈하게 하면 코로나19 잡을 수 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염력이 강하다. 그러나 독감보다 증상이 약하고 치사율 또한 높지 않다. 경계는 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기는 방법은 면역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기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력을 키우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추위를 느끼면 일시적으로 면역이 떨어진다. 면역력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교감신경의 기능이 중요하다. 교감신경은 등에 많이 모여 있다. 등이 한기를 느끼면 바로 감기 기운이 든다. 한방에서는 등을 제왕지회(諸陽之會)라 한다.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로 등이 추우면 감기로 진행된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 계피차, 꿀차, 쌍화탕 등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코로나19같은 감염병은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과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한약재로 처방된 한약이 효과적이다. ‘훈훈’이 그것이다. 이듬처럼 몸을 훈훈하게 해 준다. 감기기운이 들 때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바로 몸이 훈훈해지고 감기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2015년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유행할 때도 효과를 봤다. 코로나19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몸이 훈훈하면 바이러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러스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추워질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은 면역력을 키워주고 전염병을 이기는데 도움을 준다.

김시효 김스패밀리의원·한의원 원장

